

변화의 시대: 창조적 적응

*“농부에게 밭을 갈고 나무를 베는 연장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고 의식을 성장시킬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21세기를 통찰의 시대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지도 모른다.”*

가을 초입의 대학 교정에 수십 미터나 되는 기다란 줄이 늘어섰다. 세계적인 경영구루의 강연을 듣기 위해서다. 당근영어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세계석학초청 두 번째 강좌에 게리 하멜(Gary Hamel)이 모습을 드러내자 청중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그는 이에 보답하듯이 한 시간 반 내내 열정적인 강의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강의가 끝난 후 무대 뒤까지 따라온 젊은 학생들의 질문에 20여 분을 더해 일일이 답변을 해주었다. 세계적인 석학이 무대 뒤에서 보여준 충실하고 자상한 모습은 나에게 인상적으로 다가왔다.

게리 하멜은 “20세기 인류 최고의 발명품은 무엇인가?”라는 화두로 강의를 시작했다.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와중에, 그는 “경영관리(Management)”라고 단호히 이야기하였다. 인류가 ‘한정된 자원으로 더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문명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하멜은 경영관리 시스템을 ‘불’과 ‘글’처럼 인류의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도구로 해석하였다.

게리 하멜은 변화와 혁신의 대가이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지난 수십 년간 변화관리와 혁신기법에 대해서 내로라하는 글로벌 기업들을 멘토링했던 그가 내놓은 변화에 대한 해법이였다. 그에 따르면, 변화는 더 이상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It's not a matter of management)는 것이다. 21세기 경영환경이 너무도 빠르게 변화하고,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많기 때문이다. 대신 이 문제는 이제 ‘적응(Adaptation)’의 이슈가 되었다. 변화를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것과 ‘적응의 이슈’로 보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다. ‘적응’은 진화적 관점에서 생존 메커니즘의 핵심이다. 아무리 거대한 포식집단도 새로운 적응에 실패한 종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대자연은 단 하나의 예외도 인정한 법이 없었다.

이런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무엇일까? 통제와 관리의 범주를 넘어 창조적 적응의 주체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개인적 관점에서 그리고 조직의 관점에서 의식의 성장과 통찰이 여기에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일상 속에서 균형 감각을 잃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어렵고 복잡한 상황에서도 단순함과 명료함을 유지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다준다. 농부에게 밭을 갈고 나무를 베는 연장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고 의식을 성장시킬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21세기를 통찰의 시대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지도 모른다.

어느새 벅찬 가슴으로 시작했던 한 해를 마무리할 시점이 되었다.
함께한 대한민국 대표 HRDer들과 혼신의 힘을 다한 강사님들, 그리고 글로벌 캐리션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Written by C.E.O James Roh (노상충)

“새로운 성공적인 조직모델은 개인이 아니라 조직이 수단이 된다.” _ 게리 하멜



James Roh

